

02. 근대 이전 수취 체제와 경제생활

1 고대의 수취 체제와 경제생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체험 활동을 다녀왔어!
고대에는 괭이, 보습, 낫과 같은 철제 농기구가
널리 보급되었다. 그 결과 땅을 깊게 갈 수 있
고 황무지 개간도 쉬워져 농업 생산력이 크게
늘었다고 해.

고대 국가가 이렇게 농업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수업을 배우면



고대 국가의 농업 중심 경제생활과
수취 체제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 농업 생산력 향상과 수취 체제 정비

(1) 농업 생산력 향상: 신석기 시대에 농경 시작 → 청동기와 철기 시대에
농업 발전, **철제 농기구** 보급으로 생산력 향상

(2) 농업 진흥 노력: 우경 장려, 경작지 확대, 수리 시설 확충 등

◎ 농업 생산력 향상과 수취 체제 정비

(3) 수취 체제 정비: 조세(곡물이나 포)

공물(지역의 특산물)

역(15세 이상 남성 대상 균역, 요역)

→ 국가 재정 확보

사료

삼국의 수취 제도

고구려 세(인두세)는 포목 5필에 곡식 5섬이다. 조는 상등호가 1섬이고, 그다음이 7말이며, 하등호는 5말을 낸다. - 《수서》 -

백제 세는 포목, 명주실과 삼 쌀을 내었는데, 풍흉에 따라 차등을 두어 받았다. - 《주서》 -

백제 2월 한수 북부 사람 가운데 15세 이상 된 자를 징발해 위례성을 수리했다.

- 김부식 《삼국사기》 -

◎ 농업 생산력 향상과 수취 체제 정비

(3) 통일 신라의 수취 체제 정비: 조세 - 생산량의 1/10 수취

공물 - 촌락 단위로 지역의 특산물 징수

역 - 15세~59세 남성 대상 균역, 요역 부과

(4) 신라 촌락 문서: 세금 수취를 위해 지역 내 인구와 토지, 소와 말의 수, 나무 종류
의 수 등 조사 → 촌주가 3년마다 작성



◎ 농업 생산력 향상과 수취 체제 정비

(5) 발해의 수취 체제 정비: 조세 - 발농사 위주의 농업 발달 → 조 · 보리 · 콩 수취

공물 - 베 · 명주 · 가죽 등의 특산물 징수

부역 - 궁궐, 관청 등의 건축에 농민 동원

◎ 고대 귀족과 농민의 경제생활

토지에 부과된 조세를
국가 대신 거두어들일
수 있는 권리

(1) 귀족

- ① 삼국 시대: 공로나 관직 복무 대가로 **녹읍**과 **식읍** 수여 → 수조권 행사,
노동력 징발, 많은 사유지와 노비 소유
- ② 통일신라: 신문왕 때 **관료전** 지급, 녹읍 폐지 → 지배층의 경제적 기반 약화
→ 8세기 후반 경덕왕 때 녹읍 부활

◎ 고대 귀족과 농민의 경제생활

(1) 귀족

관료전 지급과 녹읍 폐지

- (신문왕 7년) 명을 내려 문무 관리들에게 토지를 주었는데, 차등을 두었다.
- (신문왕 9년) 정월에 명을 내려 내외관의 녹읍을 없애고 해마다 조를 차등이 있게 주었다.

- 김부식, 《삼국사기》 -

◎ 고대 귀족과 농민의 경제생활

(2) 농민

- ① 소유 토지 또는 귀족의 토지를 빌려 농사, 국가와 귀족에게 곡물·특산물·노동력 등을 바침.
- ② 귀족의 고리대, 자연재해 등으로 몰락 → 노비, 도적이 됨.
- ③ 농민의 몰락을 막기 위한 보호 정책 : 고구려의 **진대법**
흉년이나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수확 후 갚게 하는 제도

◎ 고대의 수공업과 상업

(1) 고대 국가의 수공업과 상업

수공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청에 소속된 장인, 왕족이나 귀족이 장인을 직접 고용 → 수공업 물품 생산 • 장인: 일부 낮은 관등 획득, 대부분 평민이나 노비
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라 금성(경주)에 동시, 통일 후 서시와 남시 개설 • 동시를 감독하는 동시전, 서시와 남시를 감독하는 서시전과 남시전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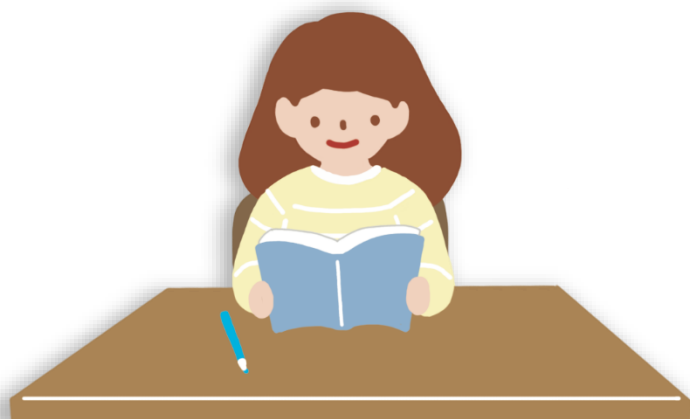
(2) 발해의 수공업과 상업: 목축업, 수렵, 금속 가공업, 직물 제조업 등 발달

→ 부족한 물품은 주변국과의 교역으로 획득

설화로 보는 고대의 수취 체제

고대 국가는 백성으로부터 조세, 공물, 역을 수취했다.

고대 국가의 수취 체제 운영이 사람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설화에서 확인해 보자.



설화로 보는 고대의 수취 체제

가실과 설씨녀 이야기

설씨녀는 비록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집안의 사람이었으나, 용모가 단정하고 뜻과 행실이 발랐다. 보는 사람들은 아름다움에 감탄하지 않음이 없었으나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 진평왕 때에 설씨녀의 아버지는 나이가 많았으나, 정곡으로 ㉠ 수자리(국경 수비) 당번을 가야 했다. (가실은) 설씨를 좋아했으나 감히 말하지 못했는데, 아버지가 늙은 나이에 전쟁터에 가야 함을 걱정한다는 소식을 듣고 설씨에게 가서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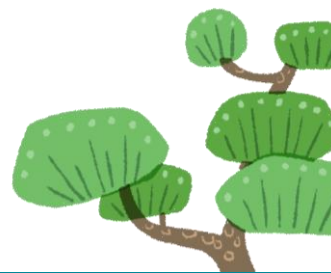


설화로 보는 고대의 수취 체제

가실과 설씨녀 이야기

“저는 비록 나약한 사람이지만 일찍부터 뜻과 기개를 자부해 왔습니다. 이 몸이 아버님의 군역을 대신하기를 원합니다.” 마침 나라에 변고가 있어 다른 사람으로 교대하지 못해 6년을 머물고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가실이 교대해 돌아왔는데, 몸과 뼈가 야위어서 파리했고 옷이 남루해 가족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으로 여겼다.

- 김부식, 《삼국사기》 -



역사로

탐구해 보자!

설화로 보는 고대의 수취 체제

활동
1

설화의 밑줄 친 ㉠은 조세, 공물, 역의 수취 체제 중 무엇에 속하는지 써 보자.

✓ 정답 확인

역사로

탐구해 보자!

설화로 보는 고대의 수취 체제

활동
1

설화의 밑줄 친 ㉠은 조세, 공물, 역의 수취 체제 중 무엇에 속하는지 써 보자.

역(군역)

✓ 정답 확인

역사로

탐구해 보자!

설화로 보는 고대의 수취 체제

활동
2

설화의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 농민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지 생각해 보자.

✓ 예시 답안

설화로 보는 고대의 수취 체제

활동
2

설화의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 농민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지 생각해 보자.

당시 농민들은 국가에 조세, 공물, 역을 납부해야 했다. 특히 노동력을 수취하는 역의 경우, 정복 활동이 활발했던 삼국 시대의 상황상 설화의 가실의 경우와 같이 기약없이 길어질 수도 있었다. 그 외에도 특산물을 현물로 납부해야 하는 공물, 재산의 정도에 따라 곡물이나 포를 납부하는 조세도 농민에게 큰 부담이었다.

✓ 예시 답안



다음 시간에는

Ⅱ-02-2 고려의 수취 체제와 경제생활

단원을 배웁니다.

